

6 승리한 왕 다윗

Chapter

시편 18편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146장 (목마른 사슴)

오늘 배울



말씀

1.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2. 다윗이 인생의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배웁니다.

마음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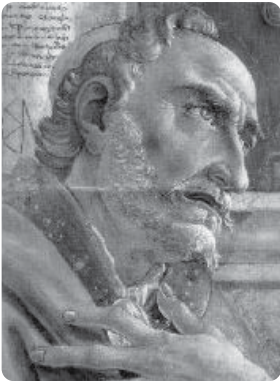
“무엇을 원하는가?”

모라비안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들을 모두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 그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



깊은 밤에 어거스틴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꿈속이었지만 그의 의식과 신앙을 지배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요.”

나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 중 하나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기름부음을 받은 후 왕으로서 일생을 마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귀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사자와 곰의 입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손에서, 열방과의 싸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대적들을 없드리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의를 따라 상주시며, 행한 대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흑암을 밝혀 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으로 떠 떠나시며 손을 가르쳐서 전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 동안 다윗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다윗을 넓고, 완전하고,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였을까요?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행 13:22)

And when He had removed him, He raised up for them David as king, to whom also He gave testimony and said,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Ac 13:2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시 18:32~35, 39)

(삼하 23:1~5)

(시 91:14~16)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비결을 시편 18:1을 읽고 기록해 보세요?
2. 시편 78편 70~72절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 백성을 잘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으며, 작은 일에 성신했던 다윗이었기에 큰 일에도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나요?
3. 다윗은 가장 천한 목자의 위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로마서 4장 6~8절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4. 다윗 왕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32절을 읽고 빈 칸을 채워봅시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를 저에게 주시리니"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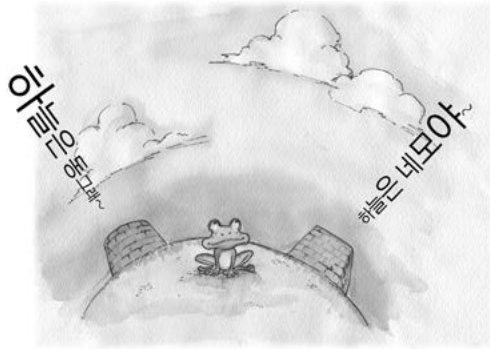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범사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물 안의 개구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의 대해를 앞에 둔 바닷가에서 한 개의 조개를 주운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 안에서 한정된 판단을 하는 어리석음을 종종 범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우물 안에서 나와 진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고전 1:20)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이

크리스천이 해설자의 집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아주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이 보였습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와 영광과 존귀로 옷 입었고, 그곳은 세상의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문에는 칼과 방패로 무장한 기사가 서 있었고, 곁에는 성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성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기사와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기를 바랐으나 발만 구르고 있을 뿐 아무도 기사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저 기사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책에 기록되었고, 그에게 갑옷이 입혀져서 곧 그 기사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용감히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는 그 성에 들어갔고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얻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천로역정 중에서)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2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